산업통상자원부 **보도참고자료**

http://www.motie.go.kr

배포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포일시	2017. 3. 31. (금)	담당부서	자동차항공과
담당과장	이원주 자동차항공과장(044-203-4320)	담 당 자	김상철 사무관(044-203-4329)

“전기차 보급 매년 두배로 늘리고 자율차 센서 핵심부품 등 R&D 집중 지원 “

- 2017서울모터쇼 개막 -

□ 산업통상자원부 주형환 장관은 3.31(금)일 10시 서울 킨텍스에서 개최된 “2017 서울모터쇼” 개막식에 참석하여 최근 자동차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정부의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함

< 개막식 행사 개요 >

○ (일시・장소) ‘17.3.31(금) 10:00 - 12:00, 킨텍스 제2전시장 6홀

○ (참석자) 산업부 장관, 국토부 차관, 광주광역시장, 주한 EU 대사, 주한 미국대사 대리, 자동차업계 대표 등 국내외 주요인사 400여명

□ 주장관은 축사에서 4차 산업혁명의 총아로 각광받고 있는 자동차 산업이 3가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다고 진단함

❶ 자동차의 부가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❷ 전기자율차의 등장과 함께 자동차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로 성능 못지않게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❸ 비즈니스의 중심이 제조에서 서비스플랫폼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언급

□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생태계의 조력자로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며 4대 정책방향을 제시함

○ 첫째, 세계최고 수준의 인센티브와 충전인프라 확충 등으로 올해 신차 시장의 1% 수준을 달성하여 전기차 시장의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토대로 2020년가지 매년 2배씩 보급을 확대하여 전기차 시장의 확실한 안착 추진

○ 둘째, 자율 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각종 규제 철폐 및 선제적인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고 자율차 센서 등 핵심 부품에 대한 R&D 집중 지원(올해 1,100억원을 포함 20년까지 5,000억원이상),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융합 얼라이언스 활성화 중점 추진

○ 셋째, 부품 중소・중견기업이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스마트공장 확산, 자발적인 사업재편 촉진, 융합형 인재 양성 등 중점 지원

○ 넷째,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신흥시장 개척 등 수출시장 다변화, 전기차와 관련 부품 등으로 수출 품목 확대, 중소・중견 기업의 수출기업화 등 근본적인 수출 구조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힘

□ 한편, 주장관은 개막식 행사 이후 주요 전시관을 참관하며 자동차 업계 관계자를 격려함

붙임 : 2017 서울 모터쇼 개막식 축사 전문 1부.

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항공과 김상철 사무관(☎ 044-203-432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04-03 14:02:05

< 참고> 축사 전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형환입니다.

‘2017 서울 모터쇼’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내외 귀빈 여러분과 행사 준비를 위해 수고해 주신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하는 서울 모터쇼는 한국 자동차 산업의 발전과 궤를 같이 하며 세계적인 모터쇼와 어깨를 견줄 만큼 성장해 왔습니다.

특히, 금번 서울 모터쇼는 “미래를 그리다. 현재를 즐기다”라는 슬로건이 제시하듯이, 국내외 자동차 산업의 현재와 미래 트렌드를 직접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최근 4차 산업혁명이 산업전반에 확산되는 가운데 자동차산업이 단연 그 총아로서 각광받고 있으며, 3가지 근본적인 패러다임의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의 부가가치가 하드웨어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급격하게 이동하고 있습니다. 자동차의 성능을 소프트웨어가 좌우하면서 자동차와 IT 기업 간의 합종연횡이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전기·자율차의 등장과 함께 자동차 구조의 혁신적인 변화로 성능 못지않게 디자인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엔진을 비롯한 1만 여개의 부품이 사라지면서 상상할 수 없었던 미학적인 공간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비즈니스의 중심이 제조에서 서비스 플랫폼으로 재편

되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나 카쉐어링 등 파생 서비스 시장에서 보다 많은 수익 창출의 기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산업의 트렌드 변화에 맞춰 우리의 대응방식도 이제 달라져야 합니다. 정부는 우리 자동차 기업들이 새로운 환경에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산업 생태계의 조력자로서 역할을 착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첫째, 친환경차의 대세로 자리잡은 전기차 시장을 우리가 선도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번 모터쇼에서도 전체 차종의 20% 이상을 친환경차가 차지한 것처럼, 글로벌 업체간의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과감한 인센티브와 함께 전기차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올해까지 누적 2만기의 충전인프라를 대폭 확충하겠습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 등 추가적인 인센티브 도입과 최소 2배 이상의 주행거리 확대가 가능한 배터리 개발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해 누적 1만대 보급에 이어 올해는 신차 시장의 1% 수준을 달성하여 전기차 보급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하고, 올해 누적 3만대, 내년 6만대를 목표로 ‘20년까지 매년 두 배씩 보급을 확대하여 전기차가 시장에 제대로 정착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자율주행차의 조기 상용화를 위해 전방위적(Holistic)으로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시장출시를 저해하는 규제는 과감히 철폐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자율차 센서와 핵심부품 등 기술개발에 올해 1,100억원, ‘20년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04-03 14:02:05

까지 5천억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시스템반도체와 이차전지 등의 차세대 기술도 확보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완성차·부품업계, ICT 기업, 보험회사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한 융합 얼라이언스를 더욱 활성화하겠습니다.

셋째, 부품 중소·중견기업들이 4차 산업혁명에 보다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완성차-협력업체-정부 간 협업을 통해 스마트 공장을 현재 800여개에서 2020년까지 3배 이상 확대하여 생산시스템 전반을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시장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활력 촉진법을 활용한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미래 자동차 시장에 필요한 융합형 인재 양성과 새로운 분야의 일자리 창출 노력도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여 수출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특정 지역에 편중된 시장을 다변화하고 품목, 주체 등 수출 구조를 근본적으로 혁신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전기·자율차와 관련 부품 등으로 수출품목을 확대하고 중소·중견 부품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자동차산업의 급격한 변화 속에서 제기되는 복잡다기한 과제들은 지난 2월 출범한 자동차산업발전위원회를 중심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주역에 "빛은 항상 그 자리에 있지만 항상 변한다"는 광휘일신(光輝日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동차는 지난 130년 동안 우리 삶 한 가운데 있으면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앞으로 그 변화의 양상과 폭은 더욱 확대될 것입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민관이 합심하여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면 우리 자동차산업이 미래 자동차시장을 주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대한민국 자동차산업의 무한한 발전 가능성을 현장에서 확인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try of Trade,
try and Energy

최미화 / 홍보담당관 / 2017-04-03 14:02:05